13년 만의 아시안컵 득점왕, ‘에이스’ 이강인이 해낼까?

2011 대회 구자철 5골이 마지막 득점왕…현재 이강인 3골로 대회 득점 공동 2위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아시안컵 득점왕을 노린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31일 오전 1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호지만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득점왕 배출도 2011 카타르 대회 당시 5골을 기록했던 구자철(제주유나이티드) 이후 13년 동안 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상승세를 그려 우승을 꾀한다. 또 현재 3골로 대회 득점 공동 2위인 이강인의 득점왕 등극도 기대 요소다.

이강인은 지난 15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에 3-1 승리를 안겼다.

25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3-3 무)에서는 귀중한 동점 프리킥 골을 터트렸다. AFC 최초 판정은 말레이시아 골키퍼의 자책골이었지만, 추후 이강인의 득점으로 인정됐다.

이강인은 대회 3골을 기록하며 우에다 아야세(일본), 아크람 아피프(카타르)와 함께 대회 득점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득점력뿐 아니라 경기력도 훌륭하다. 이강인은 ‘AFP 통신’이 선정한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5명에 뽑혔다. 아피프, 아이만 후세인(이라크), 무사브 알바타트(팔레스타인), 메흐디 가예디(이란)과 함께 선정됐다.

매체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을 팀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강인은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핵심 자원은 이강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 클린스만호의 오른쪽 측면 자원으로 출전해,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술의 중심인 만큼, 이강인이 부진하면 팀도 함께 흔들릴 정도로 주축이 됐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강팀 PSG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 답게, 아시아 맹주인 한국 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한국은 8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직접 득점까지 기록한다면 한국의 우승과 13년 만의 득점왕 배출에도 보다 가까워질 전망이다.

선수의 의지도 남다르다. 이강인은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음 경기엔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2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트레이팅 센터 훈련장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안컵 16강 빅매치로 한국-사우디전 지목

아시아축구연맹 “사우디에 AFC 올해의 선수 살렘 알 다우사리”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16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격돌하는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이 이 경기를 16강에서 가장 주목할 경기로 꼽았다.

연맹은 28일(한국시간) 누리집에 올린 16강전에서 주목할 대목을 소개하는 글에서 한국-사우디전을 가장 먼저 다뤘다.

연맹은 “한국과 사우디는 아시아 축구의 두 거인”이라며 “양국 모두 우승을 목표로 이 대회에 나섰지만 16강에서 한 팀만 살아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럽 무대를 누비는 스타가 많은 것이 한국의 강점이다. 연맹은 “한국은 스타 파워가 충분하다”며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은 유럽 최고 수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도 저력이 있다. 연맹은 “사우디에는 아시아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인 살렘 알 다우사리가 있다”며 “알 다우사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충격적인 골을 넣은 선수”라고 소개했다.

감독 간 경쟁 역시 볼만하다. 연맹은 “양국 감독은 모두 대륙 선수권에서 우승을 맛본 적이 있다”며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유로 2020에서 이탈리아를,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은 2013년 북중미 골드컵에서 미국을 우승시켰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그러면서 “이 흥미로운 대결이 다가오는 화요일에 펼쳐진다”며 “한 팀만 살아남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언제든지 부상 변수 올 수 있다 KIA, 내야 ‘슈퍼 백업’ 등장 기대

내야 슈퍼백업이 필요하다.

KIA 타이거즈의 2024 호주 캔버라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주전 내야수들을 뒷받침하는 슈퍼백업 키우기였다. 작년 2루수 김선빈(.320) 유격수 박찬호(.301) 3루수 김도영(.303)은 모두 3할 타율을 기록했다. 올해도 부동의 주전들이다. 그러나 작년 시즌 3할 내야수 트리오가 모두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팀에게는 뼈아픈 타격이었다.

김도영은 개막 2경기만에 왼 발등 골절상으로 두 달 넘게 이탈했다. 2022시즌 후반기 타격 상승궤도에 올랐고 개막부터 심상치 않는 방망이를 과시했으나 허무한 이탈이었다. 김선빈도 개막 초반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선발출전을 못했다. 게다가 6월 엄지골절과 8월 햄스트링 미세손상으로 모두 30일간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

박찬호는 9월 팀이 상승곡선을 긋는 시점에서 1루 헤드퍼스트슬라이딩을 하다 손가락 부상을 당해 2주 넘게 선발출전을 못했다. 10월에는 사구에 손목을 맞아 골절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리그의 유일한 타율 3할 유격수이자 32도루 등 공수주의 기둥이었다. 막판 5강 싸움에서 치명타를 안긴 부상이었다.

이들을 대신했던 백업 내야수들은 류지혁, 변우혁, 김규성, 최정용, 홍종표 등이었다. 류지혁은 초반 3할 타율을 유지하며 주전으로 큰 몫을 했다. 변우혁도 1루와 3루를 오가며 힘을 보탰고 7홈런도 터트렸다. 다만, 타격에서 정교함과 출루에 숙제를 남겼다.

김규성과 최정용, 홍종표는 수비는 도움이 됐으나 타격이 아쉬웠다. 슈퍼백업 류지혁은 7월 포수 김태군과 맞트레이드로 삼성으로 이적했다. KIA 내야진의 백업층이 크게 약해졌다.

올해도 부상변수는 도사리고 있다. 김선빈은 35살의 나이와 부상경력을 본다면 풀타임은 쉽지 않다. 김도영은 11월 아시아프로챔피언십 대회에서 4개월짜리 손가락 부상을 당해 개막이 불투명하다. 2월20일 정도에 기술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달 동안 개막용 몸을 만들어야 한다. 무리하게 않을 계획이어서 개막 초반은 대안이 필요하다. 박찬호도 144경기 풀출전은 무리이다.

결국은 백업층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는 2020 1라운더이자 내야 전포지션이 가능한 유틸리티 내야수 박민(22)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비력은 흠잡을 데가 없는데 타격이 관건이다. 호주 캔버라 소속으로 호주리그에서 실전 타격 경험을 쌓았다. 2할9리에 그쳤으나 140타석 넘게 소화하며 타격을 키웠다. 이미 작년까지 퓨처스리그 2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했다. 이제 터질 시간이 찾아왔다.

KIA 내야수 박민

변우혁은 1루 주전을 놓고 경쟁하지만 3루수 출전이 가능하다. 작년 데뷔 이후 가장 많은 226타석을 소화했다. 기존까지는 61타석이 가장 많았다. 작년의 경험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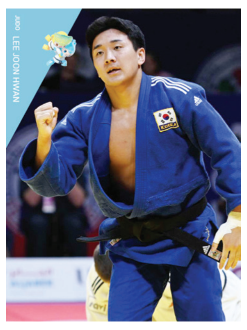
새해 입단한 KBO리그 최초로 200안타 주인공 서건창도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수비는 2루와 1루까지 가능하다. 타격은 최근 수 년간 부진했으나 재기하면 팀에게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광주일고 주전 유격수로 김도영과 고교시절 라이벌이었던 윤도현도 전포지션이 가능하다. 입단 2년동안 각종 부상으로 활약도가 미미했으나 공수 잠재력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차를 맞는 정해원도 3루수와 1루수 자원이다. 김규성도 시즌을 마치고 타격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진했다. 이제는 이들이 한 시즌의 내야진의 뒷배로 힘을 보태게 된다. 이 가운데 누군가는 슈퍼백업으로 부상해야 KIA가 안정적인 시즌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슬비 기자

유도 간판 이준환, 포르투갈 그랑프리서 日에 져 동메달

준결승전서 요시토 호조(일본)에 절반패



유도 남자 81kg급 세계 3위 이준환(용인대)이 ‘2024 포르투갈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을 땄다.

이준환은 지난 27일(한국시간) 포르투갈 오디벨라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 준결승전에서 요시토 호조(일본)에 허벅다리걸기 절반패를 당했다.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 85위 나오토 이자와(일본)를 상대한 그는 업어치기 절반과 안뒤축걸기 절반을 합해 한판승을 거뒀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땄던 그는 지난해 12월 ‘2023 도쿄 그랜드슬램 유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번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73kg급 이은결(세종시유도회)과 남자 73kg급 강헌철(용인시청), 여자 63kg급 김지수(경북체육회), 여자 63kg급 신채원(순천시청)은 나란히 3회전에서 탈락했다.

여자 70kg급 유현지(충북도청)는 2회전에서, 남자 81kg급 김승민(용인대)과 여자 70kg급 한희주(KH필룩스)는 1회전에서 각각 탈락했다.

클롭 이어 사비도 물러난다…감독 연쇄 이동하나

알론소·데 제르비 등 대체자로 거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는 가운데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도 사임을 예고했다.

사비 감독은 28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스타디 올림픽 유이스 콤파니스에서 열린 비야레알과의 ‘2023~2024 스페인 라리가’ 22라운드 비야레알전에서 3-5로 패한 뒤 시즌 종료 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며칠간 고민했는데 지금이 발표해야 할 시점”라며 “나는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이 아닌 해결책이 되고 싶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고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승하더라도 사임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사비 감독은 2022~2023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6강 이상 성적을 내지 못했다.

사비 감독에 앞서 리버풀을 2015년부터 9년째 이끌고 있는 위르겐 클롭 감독도 시즌 후 사임을 예고했다.

클롭 감독은 지난 26일 구단을 통해 “에너지가 고갈됐다”며 “나는 이 클럽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스태프, 도시, 팬을 사랑하다. 그러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위르겐 클롭 감독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클롭 감독은 리버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리그 우승, FA컵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등을 달성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구단인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사령탑이 사임을 예고하면서 감독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을 이끌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을 비롯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을 이끄는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 최근 AS로마를 떠난 조세 무리뉴 감독, 지난 시즌 토트넘 홋스퍼에서 그만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전 첼시 감독인 그레이엄 포터 감독 등의 거취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